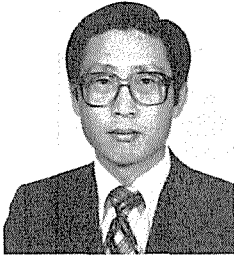


83年度 石油政策 方向



許 南 薰

(動力資源部 · 資源政策室長)

I. 序 言

국際原油市場은 1, 2次 石油波動을 치르면서 混迷를 거듭한 끝에 81年 상반기 이후 安定勢로 접어 들었다. 67次에 이른 OPEC 총회 는 그간의 威勢를 멀리하고 世界原油 需要에 맞추어 설정한 OPEC의 生産上線 범위 내에서의 會員國 間 生産 쿼터 配定問題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치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産油國의 政情不安 및 賦存量의 한계, 지역적인 편중 등으로 다소의 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으나, 최근의 안정된 에너지 사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世界에너지 동향을 감안하여 모처럼의 에너지 安定勢를 최대 활용, 장기 에너지戰略을 재정립하고 供給一辺度에서 수요 관리에도 역점을 두는 政策으로 전환하며, 5% 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 등의 中·長期 政策 課題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經濟安定 基調를 정립시키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에너지 政策의 基本課題라 할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흐름 위에서 世界에너지의 動向과 전망에 따른 에너지 政策方向下에서 中·長期 石油政策 課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石油政策 方向을 논술하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에너지 政策方向

1. 世界에너지 動向과 展望

石炭市場은 소비증가 둔화에 따른 物量供給 過剩으로 가격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石油市場도 先進國의 경기회복 지연 및 적극적인 소비절약등으로 需要가 감퇴한 반면, 先進國의 備蓄在庫放出 등으로 供給過剩狀態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供給過剩狀態는 전체적인 石油消費가

〈表-1〉 74~83년의 石油需要推移

區 分	1차石油波動		2次石油波動		83展望
	74~75	76~79	80~81	82	
世界經濟 成長率(%)	1.7	4.3	1.8	0.3	2.0
自由世界 石油需要 (百萬B/D)	45.7	50.3	48.0	45.5	45.8

〈資料〉 美에너지省 82. 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82. 12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油田 開發, 世界原油交易量 中 OPEC가 차지한 비율감소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82年度 비OPEC供給量(81年 21.2百万B/D → 24.3百万B/D)
- OPEC生産能力: 35百万B/D

2. 中長期 에너지 需給計劃 및 展望

우리 나라 중장기 에너지 需給計劃의 基本骨格은 有煙炭 및 原子力의 사용을 증대시키며, 天然가스의 도입, 사용으로 82년에 57.8%에 달하는 石油依存度を 2001년에는 32.2%까지 감축시키는 것이다.

第1, 2次 石油波動을 거치면서 石油價格은 계속 급등하여 왔으며, 世界石油市場은 産油國의 政情불안, 賦存量의 한계, 地域的인 편중등으로 需給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에너지源을 다원화하고 저렴한 에너지源의 활용 확대라는 政策方向이 결국 石油依存度の 감축으로 귀결되어 짐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 하겠다.

(表-2) 中長期 에너지源別 構成比

(單位: %)

区分	年度	82	86	91	2001
石油		57.8	46.2	43	32.2
無煙炭		21.6	18.8	13.4	7.4
有煙炭		12.2	19.7	23.0	31.2
原子力		2.0	10.5	13.1	21.0
水力·薪炭等		6.4	4.8	4.8	4.1
計		100	100	100	100

3. 에너지 政策方向

이러한 世界에너지의 安定勢를 적극 활용하고, 需給安定과 價格安定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政策方向은 에너지 消費節約, 石油依存度減縮, 國內外資源開發, 에너지 價格制度 개선 및 定全管理強化 등으로 대별될 수 있겠다.

이 중에 石油政策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만을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가. 石油依存度 減縮

이를 위하여 政府는 석유 代替 電源을 개발하고 産業用 有煙炭의 사용을 확대하며, 가스 普及 基盤을 조성할 것이다.

즉, 原子力, 石炭 중심의 發電所를 건설하고 水力資源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91년까지 8개 多目約 2,860kw를 개발토록 추진하며, 小水力의 개발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綜合 감안할 경우 82年度에 電源의 69.7%를 차지하는 石油은 91년에 16.7%로 그 比重이 낮아질 것이다. 82年度에 100만 배럴에 달하는 B-C油를 대체한 시멘트産業의 有煙炭 사용을 83年 中에는 120만 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製紙, 섬유, 食品業種을 중심으로 高効率流動層 燃燒보일러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國內 石炭의 生産制約과 需要의 高급화에 따른 家庭用燃料의 가스보급 擴大 基盤을 조성키 위하여 政府는 LNG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 87년에 200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LPG와 도시가스의 擴大普及를 통해 總家口中 가스 普及率을 82年 13%에서 86년에는 30%까지 확대 普及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에너지 價格制度 改善

政府가 직접 규제하는 現行 價格制度는 60年代에서 80년에 이르는 政府主導型 開發年代中 基礎에너지 價格의 일시적인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經濟運用 基조가 民間主導型으로 전환되고 開放經濟體制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價格構造의 歪曲에 따라 需給에의 차질을 초래하며 조정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調整要因果積 등의 問題點이 노정되고 있어 價格規制의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民間主導經濟 運用에 附合되도록 단계적으로 市場經濟原理의 도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Ⅲ. 石油政策方向

1. 石油政策方向

石油依存度を 감축하여 電源의 69.7%를 차지하던 石油가 91년에는 16.7%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에너지의 石油依存도가 57.8%에서 43%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분석하면 石油政策의 主眼點이 需給과 價格安定이라는 原論의인 政策課題 外에 精油産業의 構造改編에 놓여져야 함은 附言할 餘지가 없다 하겠다. 물론 絶대량으로 보면, 82년에 2,653萬톤이던 石油消費가 91년에는 3,539萬톤으로 33% 증가하여 현재의 施設能力을 감축할 必要性까지는 없으나 主種燃料인 B-C油가 주로 代替됨에 따라 輕質油와 重質油 間 需給不均衡이 초래되고, 開放經濟體制의 확대 및 産油國의 製品輸出增大로 輸入制限에 의한 消費地精製主義의 유지가 계속적인 위협을 받게 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石油政策의 중장기적 課題는 需給安定을 위한 所要石油의 適正確保, 精油産業의 效率性 및 競争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油價管理 主体의 변경, 精油産業 構造改編方向의 설정 및 需要管理를 위한 油種間 價格構造 개편으로 大別 될 수 있을 것이다.

2. 83年度 石油政策 方向

가. 所要石油의 長期安定 確保

國際原油市場은 81年 이후 지속적인 供給 過剩狀態를 시현하고 있으며, 非OPEC 生産量의 증대로 83年 이후 世界經濟의 회복에 따라 油類 需要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상당기간 이러한 供給過剩狀態는 지속될 것이라는 展望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國際石油市場의 不安定성과 國內에너지 需要構造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産油國關係의 健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安정적인 交涉窓口를 定着시키고 石油情報體系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國內外 油田開發事業을 추진해 나갈 것

이며, 石油代替政策에 따른 精油施設의 適正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重質油 分解施設 建設을 유도할 계획이다.

(1) 原油의 安定效率의 導入

(가) 國際原油市場 변화에 적극대처

- 불리한 導入先의 長期安定的 確保
- 不利한 長期契約物量 및 導入條件의 段階的 調整

○ 現物市場을 통한 低價原油 導入 活用

(나) 實需要 精油社의 交涉窓口와의 關係強化

- 個別, 交涉窓口와의 關係強化
- 市場변화에 機敏한 対処
- 石油情報體系의 活性化

(2) 低公害 油類의 供給擴大와 油類去來 秩序의 確立

(3) 油田開發 推進

(가) 探查, 試錐의 實施

第4鑛區, 韓日共同區域 單獨鑛區, 인도네시아 西마두라油田에 대한 物理探查 또는 試錐

(나) 油田開發 支援體制의 整備

- 國內 大陸棚 長期開發計劃 樹立
- 國內 大陸棚 租鑛契約 基準設定 運營 - 參與持分比率 및 租鑛料等
- 有望한 海外鑛區 確保推進 (말레이아等)

(다) 試錐般 建造運營: 半潛水式 1 隻

('82.3~'84.5)

나. 가스 普及基盤 造成

國內 石炭의 生産制約 등으로 現行 燃料消費 구조를 유지할 경우 86年 이후 가정용燃料가 부족할 전망이다.

따라서 부족 燃料은 가스나 石油중에서 선택할 필요성이 있으나, 石油은 油種別 取率에 따른 生産의 한계가 있고, 에너지源의 多元化에도 저해가되며 國民소득향상에 따른, 需要의 高級化에도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부족되는 가정용연료를 가스로 供給할 수 있도록 가스普及의 擴大와 安全管理強化가 絶對적으로 必要하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LNG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LPG導入의 적정화를 꾀하며 도시가스事業을 健全育成하고 가스供給業體

를 大型化하는등의 시책을 펴나갈 方針이다.

(가) LNG事業推進

- LNG導入計劃(萬噸) '87 '89
200 300
- 引受基地建設: '83.4~'86.12
 - 一. 貯藏탱크(10萬KI 3基) 및 主配營建設(97km)
 - 一. 京仁地域 가스供給網 基本設計('83)
- 韓國가스公社 設立: LNG導入 契約 締結後 發足

(2) 가스의 適正普及

- 가스供給計劃

'82 '83 增加率(%)

● LPG(千噸)	630		30
● 都市가스(千家口)	170	270	59

一. 麗川引受基地完工(156千噸): '83.4

○ LPG導入의 適正化

- 一. 導入基準 設定運用
- 一. LPG價格의 段階的 國際水準化

○ 都市가스事業의 健全育成

- 一. 業體亂立防止等 經濟單位 維持
- 一. 都市가스事業의 支援方案 講究

다. 石油價格管理制度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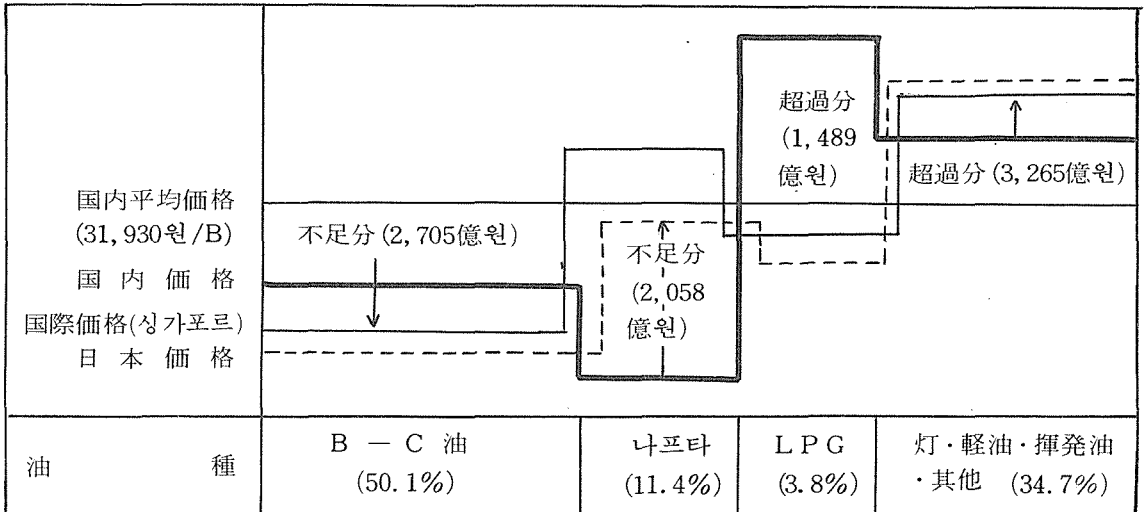
(1) 現行 油價制度의 問題點

- 政府의 直接規制로 精油産業의 政府 依存度 심화.
- 價格規制에 따른 輸出入의 直接規制가 불가피하여 精油産業의 國際環境 變化에의 伸縮對應能力未弱.
- 複合的인 政策要因反映으로 油種間 價格構造 歪曲 (表-3, 4 參照)

〈表-3〉 油種間 價格構造歪曲

單位: 稅前工場渡基準(\$ / B)

油 種	韓 国		싱 가 포 르		페르샤		日 本		台 湾	
	指數	指數	指數	指數	指數	指數	指數	指數	指數	
나 프 타	29.9	78	33.0	127	32.0	131	40.5	102	—	—
輕 油	45.9	120	38.3	147	37.8	154	61.7	155	48.7	162
L P G	69.7	192	21.9	84	21.9	89	28.0	84	60.9	213
B - C 油	38.4	100	26.1	100	24.5	100	39.8	100	30.1	100



註: ()內는 판매량 구성비임.

○ 調整時期의 遲延으로 調整要因 累積

〈表-4〉油種間 價格構造歪曲에 따른 問題點

- 一部 油種의 需給蹉跌 招來
- 産業의 國際競爭力 弱화
- 精油施設補完및 原油導入先 多辺化 誘引 未治
- 마진偏重油種의 市場確保 過當競爭 誘發
- 油價自律化의 障礙要因으로 作用

- 一. 나프타의 低價·生産忌避및 輸出選好
 - B-C油보다 低價여서 燃料로使用→에너지資源의 浪費
- 一. 燈·輕油의 低價·輕質油 需要增加에 對 備한 크래킹設置 誘導不可
- 一. B-C油의 高價·産業의 國際競爭力 弱화
 - 電力料金の 高價要因
 - 製品輸入選好로 精油社稼 動率 低下
- 一. LPG의 高價·나프타 및 燈·輕油의 低 價에 따른 損失轉嫁로 輸入價와 國內價 間 현저한 差異 發生
 - 市場確保過當競爭→流通秩序 混亂.
- 一. 揮發油의 高價·가짜揮發油 發生으로 社會問題化
 - 車輛用燃料로 LPG價보 다 현저히 高價여서 遊休施設 過剩(70~80%)

(2) 改善方向

국민경제의 확대 개방체제화에 따라 民間 主導經濟運用に 부합되도록 段階的으로 市場經濟原理 導入

○ 經濟的 衝激을 緩和하기 위하여 段階的으로 推進

一. 1 段階: 油種間 價格構造의 漸進的인 國際水準 接近

· 油種間 需給不均衡('86年: B-C油 6万 B/D過剩, 輕油3万B/D不足)을 解結하기 위한 施設設置 誘導.

· 나프타等 一部油種 生産忌避現狀 解消

一. 2段階: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

IV. 結 言

石油政策의 방향을 제시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되어온 얘기지만, 石油依存度 감축, 油種別 需給不均衡 등은 政府가 構造的으로 해결하여야 할 課題이다.

20여년간 政府의 損益을 고려한 價格調整에 依해 安穩해온 精油産業은 이제 스스로의 위치를 돌아보고 나가야 할 方向을 直示하여야 할 時點에 서 있다. 다행히 當分간 國際石油市場이 安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環境을 적극 活用하여 精油産業의 장기 運用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各界의 忠告와 助言을 바라마지 않는다. *

내 家庭과 이웃을 위하여
가스를 安全하게 使用합시다.